

## 4 >> 국제캠 통학로 안전문제



## 6~7 >> 사라지는 노천극장과 소라관



## 2015학년도 1학기 성적 열람 및 공시(정정)기간

성적열람기간(강의평가 실시자) 1차 : 6. 15(월)~6. 23(화)  
2차 : 6. 29(일)~6. 30(화)  
성적공시(정정)기간(전체학생) : 7. 1(수)~7. 3(금)  
※강의평가 미 실시자는 성적공시(정정)기간에만 성적열람 가능

# 한의·간호·이과대학 건물 20일 착공

## 건설사업단, 학생피해 최소화 위해 “기말고사 이후로 시기 조정”

### 서울캠 SPACE21 사업 시작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hu.ac.kr

SPACE21 사업 중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이 지난 3월 10일 착공식을 가진 가운데 서울캠퍼스(서울캠)도 대운동장에 들어설, 간호과 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 건물과 공공기숙사가 20일 대운동장 스탠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 중 노천극장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위해 폐쇄되며 소라관은 철거된다.

〈관련기사 6~7면〉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SPACE21 사업단은 대형 공사차량 진입과 그에 따른 보행자 동선 변경을 위해 이미 지난 3월에 ‘보차도 분리공사’와 ‘건설회차 진입로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본 공사는 안전문제와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방학 전까지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소화하기 위해 기말고사 기간 이후로 설정된 바 있다.

공사일정에 따르면 6월 1주차에는 대운동장에 공사 펜스가 설치되고, 2주차와 3주차에는 주변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노천극장의 소라관 철거공사가 시작되고, 대운

동장 본부석은 오는 27일부터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학기간인 7월과 8월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약 2년 간 공사가 진행돼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ACE21 사업단 측은 “공사로

인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설정했다”며 “특히 소음 피해와 분진이 예상되는 토목공사는 방학기간 중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5면으로 이어짐

# 우리학교, 창립대학 자격으로 초청 받아 조인원 총장 ‘1965, 그 회상의 미래’ 주제로 기조연설

###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우리학교는 1964년 IAUP 창립을 주도한 5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이번 기념식에는 조인원 총장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기념식은 ‘2065년 고등교육’을 주제로 개최됐다. 세계 전·현직 대학 총장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인원 총장은 지난 23일에

‘1965, 그 회상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조 총장은 “인간과 문명의 궁극적 실체,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일과 그를 위한 열정과 의지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일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과 대학총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다”라며 대학이 인류사회에 가져야 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달 공개된 ‘미래리포트’를 언급하며 문명의 진보 안에서 이 시대 대학생들이 처하게 된 경쟁적 개인시대에 대한 고민을 공

유하고 대학의 교육적 사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4일 저녁에는 제1차 IAUP 회의가 열렸던 장소인 로드장학재단 본부에서 우리학교가 주최한 폐막 만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 총장은 130여 명의 참석자들에 대한 환영사로 IAUP의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50년의 발전을 기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교류처 박용승 처장은 “이번 회의는 IAUP의 전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회

의였다. 회의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며 “50년 전,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주창한 ‘세계시민정신’은 현대사회에도 유효하다. 이런 가치를 우리학교가 계속 추구한다면 끊임없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후 조 총장은 IAUP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 IAUP 창립을 이끌었던 우리대학 설립자 조영식 박사를 비롯한 5개 대학의 창립 총장을 기리는 기념식수 행사도 열렸다.

〈관련 인터뷰 3면〉

## Newsmaker

〈숨다섯〉 앨범 발매한 MJP  
박민준(작곡 2011) 군



## 일상을 노래하는 스물다섯의 이야기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하루를 마감하는 나의 숨소리 / 하늘 바라보다 하리 (뚝)소리 / 하루 종일 땀다가 붙었다가 버스카드 소리 / 지겨워 잠들 땀 내 천장 위에 그려가던 / 어린 시절 / 지금보다 순수했던 나의 꿈들은 / 사라져 버린 스물다섯 청춘.’

지난달 25일 발매된 ‘숨다섯’이란 앨범의 타이틀곡 도입 부분의 가사다. 경쾌한 피아노 소리로 시작하는 이 음악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박민준(작곡 2011) 군의 노래다. 우리신문은 지난 3일 그를 만나 음악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작곡가로 인지도 쌓고

싱어송라이터로 노래하고,  
‘숨다섯’의 희망 노래

박민준 군의 첫 앨범제목이자 타이틀곡의 이름인 ‘숨다섯’은 올해의 그의 나이 25살을 의미한다. 그에게 이 스물다섯은 미래에 대한 고민의 시기이자, 남다른 의미의 때이기도 하다.

“25세면 ‘반 50세’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25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놀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기본은 이뤄놓고 싶어요. 졸업 후에 쉬는 기간 없이 바로 무언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보니 고민이 많아지죠. 그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이 ‘숨다섯’예요.”

세 곡으로 이뤄진 미니앨범 ‘숨다섯’ 앨범에 수록돼있는 다른 두 곡 역시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이를테면 〈방울소리〉는 13년 동안 키워던 반려견이 죽었을 때 잠을 이룰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작사한 곡이다. 〈모카와 라떼 사이〉는 조금

독특한 유래가 있는데, 박 군이 수업시간에 옆 사람이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소리가 특이하게 들려서 무슨 음료인지 물어보니 ‘모카라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기서 시작된 의식의 흐름이 곧 자연스럽게 작사로 이어졌는데, 워낙 몰두하다 보니 해당 수업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곡의 가사가 전부 완성됐다고 한다.

“우유팩에 빨대를 꽂아 먹다 보면 후르륵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옆 자리에서 문득 그 소리가 나기에 우유 소리인 줄 알았는데, 모카라떼였어요. 전 카페라떼는 많이 들어봤는데 모카라떼는 그 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에는 그 어감에 집중하다가,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곡이 시작됐는데, 수업이 끝날 때에는 이미 〈모카와 라떼 사이〉라는 곡의 가사가 다 나와 있었어요. 뭐 수업을 제대로 듣진 못했지만요.”

다른 사람의 음악 재생 목록에 자신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는 박 군. 3월부터는 앨범을 준비하던 틈틈이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박 군의 꿈은 ‘대중음악 작곡가’다.

“일단 전공이 작곡이니까, 작곡가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숨다섯〉의 후렴구처럼 ‘완벽한 확신 따윈 없’지만 ‘무서워 숨지는 말자’는 태도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 음악대학 모든 학과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전부 피쳐링으로 참여하는 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이 이끄는 그의 삶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나이 ‘숨다섯’이 음악 인생의 뚜렷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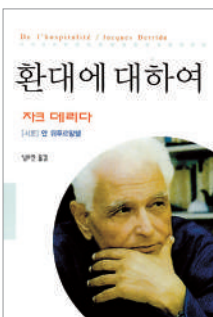
# 이방인의 환대, 《환대에 대하여》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65

민승기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뒤푸르망텔이 초대(invitation)하고 데리다가 응답한다. 그러나 데리다는 뒤푸르망텔을 사로잡는 ‘광기’로, 그녀를 놀라게 하는 ‘유령’으로 이미 그녀를 방문(visitation)하고 있다. 초대는 이미 항상 타자의 방문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왼쪽 페이지엔 뒤푸르망텔이, 오른쪽 페이지엔 데리다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데

리다를 이론화(하지 않는 방식으로)하려는 뒤푸르망텔은 데리다라는 ‘밤’을 통과해야 하고 데리다 역시 뒤푸르망텔의 ‘낮’의 사유를 경



환대는 이방인의 환대이고 플라톤에게 이방인이란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자다

유해야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자신과 달라야만, 스스로를 연기하거나 중지해야만 자신이 될 수 있는 환대(hospitality). 낮과 밤, 초대와 방문은 이미 서로를 사로잡는 광기로 상대방 속에서 출몰한다. 서로의 문턱을 넘나드는 혼돈의 움직임 속에서, 이미 있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약속으로 남아 있는 타자에게 공간을 선물하는 행위가 바로 환대이다.

환대는 사유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그것을 동요시키는 ‘열림’으로 출몰하고 있었다. 환대는 이방인의 환대이고 플라톤에게 이방인이

란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자이다. 아버지 로고스를 뒤흔드는 ‘미친-이방인-살해자.’ 그러나 이방인이 아버지 살해자라면 그는 이미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가? 데리다는 묻는다. ‘어떤 사람이 네 옆에 다가가 아무 잘못 없는 너를 죽이려 한다면 너는 이 자자가 아버지인지 물어보겠느냐, 아니면 곧장 반격하겠느냐?’고. 오이디푸스의 항거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친밀한 자임을 증언한다. 때로 이방인은 소크라테스 자신이다.

▶11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이번 호가 2015학년도 1학기 중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 기획

### 설립자 故 조영식 박사

1954년 학장취임식 릴-테이프 발굴

>>8면



시선

사설

SPACE21사업, 불신은 아무런 득 되지 않는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입문>에서 불안의 두 가지 근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불안함’이 대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와 ‘너무 잘 아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불안이 생성되며, 또 대상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결과가 미리 예견 될 때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서로 매우 상반돼 보이는 불안의 이 두 가지 근원은, 종종 특정한 사건에 직면한 조직 공동체가 구성원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왔다.

가령, 리더십은 공동체가 직면한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구성원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곤 한다. 이에 많은 리더십은 정보의 통제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의 결과 구성원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통제됨으로써’ 불안감을 자극받곤 한다. 그래서 구성원은 ‘정보를 숨기는 현 리더십은 무능해보이며, 이 무능의 결과는 뻔히 예상되므로 불안하다’는 생각에 쉽사리 빠져드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다.

안타깝게도, 최근 SPACE21사업을 둘러싸고 벌여진 학교 측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측의 논쟁 구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먼저, 학교 측은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미숙한 모습이다. 주지하듯, SPACE21사업은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구성원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구성원의 많은 의문들 앞에서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려 하기는커녕 자세한 부연 설명도 없이 ‘믿어 달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결코 신뢰를 요청하는 행동이 아니다. 도리어 구성원에 대한 불신이 묻어나는 태도이자, 구성원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이다. 학교 측이 정말로 구성원을 SPACE21 사업의 동반자로 여기고 신뢰하고 있다면, 구성원 앞에 솔직한 태도로 나서야 한다. 모든 정보를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을 신속히 확정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반면, 총학 역시 학교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는 전제로 두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총학은 SPACE21사업의 동반자로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팩트와 수치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지속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표피적인 우려나 피상적 가정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가려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불신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되고 말 것이다.

겨우 시작되려 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상호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재차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측과 총학 측 모두, 상대에 대한 불신을 털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교내에 메르스 공포 확산

3차 감염 방지 위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미디어 여론동향 2015. 5. 25 ~ 6. 7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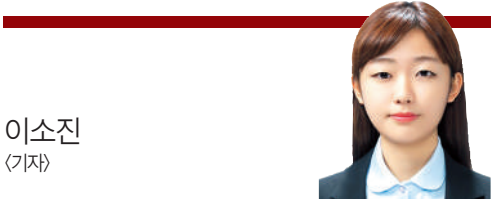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주차 할인용 도장’이 오는 30일부터 폐지된다.(6월 30일부터 주차 할인용 도장 제도 폐지/대학주보 온라인, 2015. 6. 1) ‘주차 할인용 도장’은 일반학인의 일환으로 학교 방문차량에 대한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장이 남용됨에 따라,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가 더 불거지는 원인이 됐다. 특히 SPACE21사업과 공공기숙사 신축을 앞둔 상황에서, 대운동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주차 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국제캠퍼스 보행로 문제

서천동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해야



이소진 (기자)

국제캠퍼스(국제캠) 주변 자취공간이 정문 앞에서 서천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천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한 신축 원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넓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행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6월부터 통학생들이 자주 지나는 서천동 원룸촌 주변 ‘굴다리’ 이용이 제한돼, 불편이 벌어지고 있다.

‘굴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서천동 원룸촌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서천동으로 향하는 길 중 제대로 된 ‘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불거진다.

우정원 하수처리장 옆에서 서천동 원룸촌으로 이어지는 길은 위험 요소가 많았다. 길은 폭 50cm로 옆에 배수로를 두고 이어져 있어 체조 경기장의 ‘평균대’나 마찬가지다. 우정원 뒤쪽에 맞닿아 있는 새길 역시 정식 통학로가 없는 인근 원룸촌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높이 10cm 가량의 나무판자를 덧대어 만든 길은 여기저기가 파손된 채로 아슬아슬한 상태다. 또한 글로벌관·제2기숙사 뒤에서 서천동으로 이어지는 통학로는 후반부 경사부부터 포장 없이 방치돼 있다. 통학

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 야간에 시야확보도 힘든 상태다. 차마 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색깔이 버젓이 ‘통학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못해 해당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결같이 “불편하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학교가 길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굳이 학생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기자의 눈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길을 재정비하는게 시급해 보였다. 이와 관련해 관리팀의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를 역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을 만든대거나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서천동 방향 통행로의 상당부분이 ‘학교 밖’ 도로인 만큼, 이 도로의 모든 부설을 학교가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안의 ‘길’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밖 길 역시 용인시나 경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도로부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 학교 밖 통학로 역시 학교의 책임범위이기 때문이다.

안전대책의 핵심은 ‘선제적’인데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매년 서천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더불어 통학로를 이용하는 통학생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문제에 대한 ‘인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책과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뒤집기 연속인 대학구조개혁, 본래 목적 무엇인가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방법은 바로 ‘뜨겁게 달궈진 팬 위에서 짧은시간 굽고 자주 뒤집기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기를 여러번 뒤집다 보면 육즙이 사라지고, 고유의 맛이 사라져 맛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떤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진이 있을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해당 대책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은 맛있게 구워지긴 어려워보인다.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주목해야겠지만, 최초의 목적에서는 떨어졌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슬쩍 바꾸기도 하고, 실시하기로 예정됐었던 현장평가도 인력부족과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해버렸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부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여러번 뒤집어서 이미 맛없어진 고기를 ‘맛있다’고 우기기 보단, 차라리 새로 굽는 것이 낫다

현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때로 돌아가보자. 당시 교육부는 ‘대학정원 비대화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대입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장이라도 대학구조개혁에 돌입하는 듯 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에 반대하는 이는 드물었다. 오히려 고등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결과적지만 현 시점으로 볼 때, ‘제대로 된 교육여건도 갖추지 못한’ 대학의 교육여건을 끌어올리기는 커녕, ‘실용과 취업만을 더 중심에 두는’ 우려만 현실화됐다.

여러번 뒤집어서 이미 맛없어진 고기를 ‘맛있다’고 우기기 보단, 차라리 새로 굽는 것이 낫다. 여전히 교육은 뒷전이고 등록금으로 ‘학위장사’나 하고 있는 일부 문제대학이 고등교육을 갉아먹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문제는 유효하다. 대학구조개혁 1차 평가가 조금이라도 유의미해지기 위해선 대학에 불필요한 ‘학과’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대학답지 못한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PS-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올해 안에 대학 전공별 산업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하겠다”는 것이 대학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고기라면, 고기를 맛있게 굽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구울 고기가 최소한 썩은 고기는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인류가 상호이해 못하면, 문명은 폭력적으로 흘러간다”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학교 조인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의 주제는 ‘1965, 그 회상의 미래’였다. 이 연설에서 조 총장은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고등교육의 궁극 목표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평화와 복리 증진”이라며 “현대사회의 상징인 ‘우주 시대,’ ‘문명 시대’는 다시 한 번 성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출판문화원

## 조인원 총장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승철 편집장, 최승욱 부편집장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런 문제가 50년 전과 외양은 다소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로 지적인 ‘본질’은 무엇이고, 50년 동안 인류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조연설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IAUP를 먼저 거쳐 가신 총장님들의 연설 수록문을 읽어봤다. 당시의 연설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인류와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 봐도 어느 하나 어색한 것이 없었다. 핵무기나 식량문제, 소외된 사람들의 처참한 삶의 질 문제 등이 그것이다. 오히려 부의 편중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고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이야기했다. 시대적인 문제들 앞에서 대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성찰과 전망을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류가 서로 교감하거나 역사하지 못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마음마저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이 과학기술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의식의 개방, 연대, 각성, 공감 등이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고 지난 세월동안 같은 본질에 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풀어나지 못한 원인이라고 봤다.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0년 전 IAUP 창립회의에서 고(故) 조영식 박사는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역할로 “고등교육의 궁극 목표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평화와 복리증진”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대학이 왜 존재해야하는가. 아마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물어봐도 저마다 다 답이 다를 것이다. 하물며 전 세계 대학을 다 놓고 ‘이 시점에 대학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무수히 다양한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자문(自問)이다.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문하는 것처럼, 대학 역시 ‘대학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대학 또한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대학은 우리사회를 위해 적절하고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인간의 문제, 보편적인 관심사, 우리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의 문제 등을 조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고등교육기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당장 목전의 학생들은 취업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교수들은 연구도 해야 하고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일상에 지쳐있기 때문에 ‘대학은 무엇인가’하는 고민을 깊이 해 볼 틈들이 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요구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감당해야겠지만, 이를 뛰어넘어 인류가 갖는 보편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IAUP창립 50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도 언급했지만, 미래리포트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의 존재 이유로 진리탐구와 같은 전통적 가치보다 ‘자아실현’을 더 중요하게 꼽았다. 반대로 과거 우리나라 대학들은 산업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에 급급해 보편적 가치의 추구나 ‘자아실현’이라는 가치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아실현이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다만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남의 행복도 생각을 해야 또 행복을 이어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 내 행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행복을 원한다. 인간으로서 지켜져야할 특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타자의 행복에 관해서, 주변에 있는 타자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더 크게 보면 인류사회가, 또 더 크게 보면 미래세대에 살아갈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만드는 것도 이 시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대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박봉에 시달리는 것도 이전 세대가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물론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게 뜻대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주제이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경계는 ‘인간

작위의 결과’며, 그 작위가 인간세계의 열린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학문세계는 학문간의 ‘칸막이’가 아니라 융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사제도로는 학생들이 복수전공·다전공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정치학을 생각해보자.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정치를 하거나 정치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도 한 2~30% 안팎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결국 전공과 관련이 적은 사회 곳곳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것은 다른 많은 학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공교육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학생들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도를 통해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 가령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스스로 설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기업에 취직하길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더 많이 듣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전공교육을 더욱 많이 이수하게 되면 학업성취도도 높아질뿐더러 향후 그 학생의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획일화되고 경직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희망 진로가 반영된 학점이수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학현안이 궁금하다. 지난해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장선출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교수의회 역시 우리신문과의 간담회에서도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총장선출 방식’이 궁금하다.

“현재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총장선출 방식’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첫째로는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점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요구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감당해야겠지만, 이를 뛰어넘어 인류가 갖는 보편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훌륭한 총장을 모셨느냐하는 것일 테다.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각각 그 ‘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문제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결정이다.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실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후보에 대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면서 학교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과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으로 대표되는 현 교육부의 정책기조는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도 사회의 일부인 만큼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대학의 정원과 학과운영 정책 기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다.

“개인적인 소신은 ‘대학은 결코 정부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도 요구하고 대학도 필요로 하는, 더불어 우리 학생들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원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대학 정원 감축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으로서 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교무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시대의 변화와, 정부정책 변화에 발을 맞추면서도 또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가, 또 대학운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 조인원 총장과의 인터뷰는 예정시간을 넘겨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지면 사정상 그 모든 이야기를 지면에 담지 못했다.

우리 신문은 전체 인터뷰 전문을 ▲1부 IAUP ▲2부 대학현안으로 나누어 대학주보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이다.



조인원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일 본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우리신문 백승철 편집장과 최승욱 부편집장이 대화를 나눴다







# SPACE21 총 사업비용 서울 · 국제 합쳐 1,750여 억원 책정

## SPACE21 공사비용 확보 논란

박기윤 기자 kyooun@khu.ac.kr

SPACE21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이 예고된 가운데 공사비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학본부 측은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 약 1,750억 원에 대해 경희학원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총 사업비 1,750억 원 중 약 800억 원은 서울캠퍼스(서울캠), 약 950억 원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 국제캠 종합체육관 건설비용 약 225억 원은 이미 확보·투입한 상태다. 이밖의 사업비는 기금과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통해 얻은 기 확보 자원 94억 외에, 기채 신청을 통해 500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운영수익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 500억원 기채는 대출 3년 후부터

### 17년간 상환 예정

기채의 경우 대출 시점 3년 후부터 17년에 걸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는다는 계획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이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영원 김상만 원장은 “실제로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30억 원 초중반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학교로 들어오는 비목적기부금을 활용하거나 대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금 또는 수익 사업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과 대학본부, SPACE21 사업의 두 가지 쟁점

<b>기채규모</b> <b>총학</b>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책 없다” <b>VS</b> <b>대학본부</b> “비목적 기금과 재정사업을 통해 공사비용은 충분히 충당 가능”	<b>구성원과의 소통부재</b> <b>총학</b> “등심위를 ‘서면회의’로 진행하자는 것은 학생을 기만하는 것” <b>VS</b> <b>대학본부</b> “등심위 위원들의 의견 물어본 것 일뿐 강제로 진행할 생각 없어”
---	--

하지만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학교의 자금마련 계획이 ‘불충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난달 28일 공개질의서를 게재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 4일에는 청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평의원회의에서 SPACE21공사를 위한 500억 대출에 대한 안전이 올라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단 두 장의 예산계획서만 볼 수 있었다”며 “그저 믿으라는 대학본부의 요구에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본부와 서울캠 총학 사이 쟁점은 2가지다.

먼저 ‘기채규모’에 대한 문제다. 총학은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총학 이정아(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재정경영원 면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계약 이전이기에 전체적으

로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불확실한 부분이라도 구성원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대학본부,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최대한 막는 등 최선을 다할 것”

학교 측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영원 김 원장은 “핵심적인 재정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으로 자세한 액수나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어 아쉽지만 총학이 걱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며 “비 목적 기부금과 재정사업을 통해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의 경우 우리신문의 취재결과 시설 운용수익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최대 수익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개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학측의 설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채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기채를 빌리는 것 또한 절대 예산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대학 전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발생할 다양한 재정 수요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 모두를 건설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다”며 SPACE21 사업은 물론 발생하는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 수요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채의 성격을 설명했다.

즉,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학, 연구 등 목적성 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채의 규모는 확연하게 줄일 수 있지만 SPACE21 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로 기채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또한 “기채의 사용방식도 한번에 목돈을 받아 500억 전체에 대한 이자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의 형식을 취해 불필요한 이자의 발생을 최대한 막는 등 대학 본부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쟁점 두 번째는 관련 대책에 대한 구성원과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총학이 진행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역시 이런 절차에 대한 비판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사립학교법 28조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학교가 기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등심위 개최통지가 지난 2일 총학과 재정경영원장과의 면담 중에 이뤄졌고, 등심위 진행방식 자체도 서면으로 하자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총학 측은 “재정경영원장과의 면담 도중 등심위가 3일 뒤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심지어 실제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등심위를 진행한다는 통보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등심위 담당부서인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등심위 ‘서면 회의’ 제안은 단지 등심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 강제로 진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한명이라도 반대가 나올 시에는 대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총학, “현실성 떨어지고, 학생과 충분한 논의 없었다”

재정경영원 김 원장 역시 “지난 2011년 기채신청을 논의하며 당시 총학과 합의가 끝났지만 현재 상황이 변화된 점을 충분한 수준에서 고려하지 못했다”며 “학생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으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등심위는 연기된 상태로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등심위를 진행해도 총학이 ‘확실한’ 재정마련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착공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학의 설득이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거리다.

### ▶1면에서 이어짐

SPACE21 사업단은 공사일정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대책을 세운 상태다.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 진행하고, 관련 공지 역시 사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발파 시 방호매트 사용과 소음자동 측정망 설치를 통해 소음 역시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차량 차속 제한(20km/h 이내), 세륜 세차시설, 주기적 살수 및 풍속계, 방진망 설치 등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실제로 장기간의 공사인 만큼 학기가 시작될 경우 등교하는 인원이 많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와, 점심시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은 공사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공사진입로(교시탑 부분)에 안전요원 1명이 상시 배치되고, 건설 자재 운반시에는 4명의 안전요원을 배

치해 보행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운동장이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부족해지는 주차공간은 소라관이 철거된 후

설치될 임시주차장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운동장은 평균 240여 대를 수용해 왔지만 새로 설치될 임시주차장은 85대만 수용할 수 있어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총무팀 관계자는 “부족한 주차공간은 푸른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5부제를 시스템화 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노천극장 소라관 공간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난 후 글로벌 타워가 들어서고, 노천극장 부지는 잔디광장으로 바뀐다.

한편 본격적인 서울캠 SPACE21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캠퍼스(국제캠) SPACE21공사의 진행상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제캠의 경우, 구성원 간 논의

과정이 일찍 끝난 종합체육관 신축사업이 6월 4일 기준으로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단 측은 “올해 말까지 옥상 층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후 공정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대학 교수연구동의 경우 외국어대 구성원의 건물 위치 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면작업이 끝나 스페이스21 사업 대표건축가 이현호(홍익대 실내건축학)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학관의 경우 지난 돌 구조물 삭제를 바탕으로 한 절충안이 나온 후 4층 연면적 7,000평에서 5층 7,200평으로 규모가 소폭 커졌다. 이후 내부설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 두 건물은 최종설계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후 건축 인·허가 과정까지 고려할 때 연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iveNgive**

**기쁜기부 캠페인**

경희 기부천사파트너즈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경희 라이언 서포터즈클럽 

매그놀리아 스토리 

후원의 집 

 give@khu.ac.kr

 givekhu

 givekhu

 givekhu

 02-961-0932    031-201-3190



The World is a Global Village and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One Human Family. May We Strive for Peace and Humanity with the Spirit of Global Cooperation Society.

 give.khu.ac.kr



# 처음과 끝, 그리고 축제 다시 태어날 노천극장

## 대학주보가 보내는 특별한 편지

백승철 기자 schot357@khu.ac.kr

노천극장, 그대가 떠난다고 들었다. 그대와 내가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56년이다. 처음 그대를 만났던 푸른 청춘들이 이제 백발성성한 노인이 됐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함께 했던 추억 역시 그 시간만큼 층층이 쌓여 남아있다.

기억하는가, 지난 1972년, 교내 유신반대 시위로 결국 학교가 45일간 휴교를 맞고 말았던 때를, 그리고 보면 그대는 서울 퍼린 군사정권의 위해 속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품을 만큼 넉넉했고, 또 그 학생들이 용기 내어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장이 되어 줄 만큼 굵직했다. 비록 총학생회가 해체되고 그것이 1975년 학도호국단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그대에게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줄었다지만, 학생들의 끓는 마음을 당신은 자우지 않았다.

10여 년 만인 1984년 11월, 다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부활해 발대식을 가진 것도 그대와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이 발대식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총학생회를 다시 인정했던 1985년 3월 14일 보다도 앞선 일이었다. 비록 이후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양 캠퍼스 출범과정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선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1984년 그해부터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그대를 중심으로 ‘서클’모집에 나서며 학생문화를 다듬어갈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학생사회의 주요한 변곡점들이 그대 품에서 이뤄졌음을 기억한다. 정말 그대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의미였구나 싶다. 1986년에도 학생들은 그대와 함께했다. ‘전광정계준원’ 입소를 거부하며 스크럼을 짜고 ‘전반일소 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쳤던 것을 그대도 기억하리라. 또 학생들은 같은 해 5월에 4.19민주혁명을 상징곡으로 재연하며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의 함성이 메아리쳐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그대와 함께했던 이런 메아리는 1989년 ‘공안통치분쇄와 광주학살·5공비리’ 해결 요구와 함께 ‘자유경희 투쟁본부’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 서울퍼린 군사정권 속에서도

#### 그대는 우리를 품어주었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삶은 그대와 함께했다. 학생들은 등 록금 협상 때마다 먼저 그대 앞에 모여 소리를 모은 후 본관으로 향했다. 본관은 매번 수 천 명의 학생을 모아 보내는 그대에 대해 투쟁을 부ரி곤 했지만, 그대는 그 투쟁을 짐짓 귓등으로 흘리며 수 십 년 간 학생들을 품었다. 덕분에 2000년에는 당산으로로부터 출발했던 1,200명의 학생들이 등 록금 투쟁 ‘1차 결의대회’를 갖고 본관을 가 압류하겠다는 본관 내 집기를 모두 들어내는 진풍경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대에게 향해 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두리번대던 곳이 바로 그대의 품 안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962년의 ‘신입생환영회’를 시작으로 매년 입학식마다 당산의 품에서 새내기들의 생활을 출발했다. 70년대에는 아예 ‘경희국민학교’, ‘경희남중·고’, ‘경희여중·고’의 입학식이 한꺼번에 치러지기도 했다. 요즘에야 언덕 위에 올라앉아 있는 평화의 전당 너머서 그 역할을 대

신하고 있지만, 돌아해보면 저 어린 것보다야 그대가 맞이했던 경희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 그대가 품었던 것은 비단 불의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제4회 대학제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제가 그대 안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인간탐을 쫓기도 하고 카드섹션을 선보이기도 하며 만연한 웃음을 떨쳤다. 그대와 함께 하던 매 행사마다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대와 함께하며 학생들은 ‘새로움’의 순간을 목도하기도 했다. 1977년 5월이 대표적인 순간이었지. 그 날, 당시 안에서는 국내 최초의 ‘에어리크 댄스’가 선보여졌다. 개교기념식 행사 석상에서였는데, 여자 28명과 남자 24명이 ‘검기, 달리기, 스윙밍, 자전거타기 등의 동작’을 선보였다. 그날 자리했던 사람들의 표정들이 기억나는가? 생전 처음 보는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놀라운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 입학에서 졸업까지 그대는 우리를 성장시켰다

그중에서도 지난 1989년 양 캠퍼스가 한 데 모여 ‘경희가족통일 한마당’을 열었던 것은 그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고환통일제’와 국제캠퍼스의 ‘서천대통제’ 마지막 날이었던 5월 26일, 이날 한자리에 모인 양 캠퍼스 학생 1,000여 명은 ‘서로의 단결’을 외치며 그대 안에서 하나의 경희임을 재확인했다. 양 캠퍼스 학생 400명이 각각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도 했는데, 3대 1로 국제캠퍼스가 이겼다(그 때엔 수원캠퍼스였지만).

1999년 개교50주년 기념행사는 또 어떠했는가? 몰아치는 비속에서 우원좌왕하던 사람들과 이런 행상날에 사람들의 머리 위를 모두 가려주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던 그대의 모습이, 아직도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긴 세월 동안 최후반이나 남아드는 부석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온 그대가, 정작 기념행사날 쏟아지는 폭우를 가려주지 못해 찢대던 그 모습이구나! 결국 우산을 퍼든 사람들은 내리는 비와 열에서 찢르는 우산 꼬챙이에 짜증을 내며 어느덧 허름해진 그대에게 투덜대곤 했다. 그래도 그로부터 10년 후인 개교60주년 기념 ‘경희 열린 음악회’ 때는 비가 없었지 않은가.

이런 그대가 지난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SPACE21사업 때문에 주글한 모습을 하고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었으니,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한때 경희의 자부심이란 소라관은 둘러쳐진 펜스에 갇혀 시나브로 남아있다.

하지만 완전히 쇠락해보이면 외관과는 달리, 그대는 그 사이에도 여전히 넉넉했다. 2012년 2학기부터 그대는 소라관 앞마당을 텃밭으로 내주었다. ‘도시농부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올해도 그 텃밭을 가꾸며 먹거리문제부터 환경개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이제 안부를 고해야 하고, 또 이런 순간이 와버렸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는 않지만, 그대이기에 괜찮다고 애써 믿어본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입학식처럼 졸업식도 온전히 그대 품 안에서 벌어지는 그대의 몫이었다. 정을 나눈 학생들과 헤어지는 일을 몇 번이든 그대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대 위에 새롭게 세워질 글로벌 타워에서, 또 그 앞의 잔디공원에서 이제까지처럼 새로운 만남이, 즐거움이, 날카로운 지적이 생겼을 것이다.

하루 빨리 새로운 만남을 고대한다. 그대가 있어, 나는 전진으로 행보했다.



## 노천, 그대 안에서 하나의 경희였음을…

2015년 6월, SPACE21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노천극장이 철거된다. 1959년 완공된 노천극장은 5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경희구성원과의 크고 작은 일상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다. 이에 우리 대학주보는 경희기록관과 과거 대학주보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경희인과 함께한 역사를 되짚어 봤다.



① 4년간 펜스가 설치된 소라관 주변은 풀이 무성해졌다  
② 대학제에서 축전, 대동제 등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도 행사의 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③ 1972년 유신반대시위가 치을 시작된 장소 역시 노천극장이었다  
④ 1962년 신입생 환영회 이후 매년 입학식들이 이곳에서 처음 모였다

⑤ 91년 8월에 열렸던 청년학생통일대축전 폐막식 등 번복적마다 노천극장은 주요한 장소였다  
⑥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는 것 역시 노천극장의 역할이었다  
⑦ 1999년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당시 비가 많이 와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우산까지 썼다  
⑧ 이제 허름해진 소라관은 오는 20일 철거될,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1959년 10월 완공 관객 2만 명 수용

## 노천극장 56년의 역사

남기원  
경희기록관 계장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는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한 장소가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야외 공연장인 노천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실내 공연장인 평화의 전당이다. 둘 중에서 먼저 지어진 것은 물론 노천극장이다. 노천극장은 1959년 9월에, 평화의 전당은 그로부터 40년 후인 1999년 10월에 완공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노천극장은 대규모 실내 공연장을 지을 여력이 없었기에 선택된 대안이었다고 한다. 노천극장을 계획하던 당시 서울캠퍼스에는 1954년부터 시작된 ‘대학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관, 체육대학관(지금의 내오르네상스관), 문과대학관, 등용문, 교신타, 대운동장 등이 줄줄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맛스럽고 웅장한 실내 공연장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학업 외 활동을 지원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펼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공연장을 구상하게 되었고, 결국 채택된 것이 그리스의 원형극장과 같은 형태의 야외 공연장이었다.

“대강당”을 뒤로 마루고 선택된 공사였지만, 노천극장을 짓는 일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우선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했다. 다행히 문과대 앞 낮은 지대에 있던 소운동장의 생김새가 노천극장의 입지로 적합했다. 문과대에서 대운동장 쪽으로 끼고 돌아가는 둔덕은 반원형의 스탠드로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스탠드가 끝나는 곳에 무대를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그럴듯한 대규모 야외 공연장이 탄생될 것 같았다.

가장 큰 문제는 무대 구조였다. 야외 공연장이기에, 관중들의 이목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무대의 소리를 객석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건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는 마땅히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결국 무대를 설계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레퍼런스라 채택된 것이 미국의 할리웃 볼(Hollywood Bowl)의 사례였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할리웃 볼은 클래식과 팝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연이 열리는 1만 8천석 규모의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이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노천극장과 규모도 비슷하고, 자연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타원형으로 건설한 방식도 우리의 경우와 유사해서 이 무대 건축물의 구조를 차용해 노천극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58년 6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노천극장은 청춘의 열정과 패기가 발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축제 때가 되면 노천극장은 젊음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찬다. 음원제 혹은 초청 가수들의 공연 때 모인 학생들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래, 같은 율동, 같은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된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타원형의 둔덕을 비스듬히 깎은 후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스탠드를 만드는 동시에, 그 끝부분에서는 무대 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대를 덮을 아치형 지붕 공사가 까다로웠다. 폭 27m, 높이 15m, 깊이 11m의 아치형 지붕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큰 사고도 있었다. 한 번은 업자의 부주의로 콘크리트가 계 굽기 도 전에 틀을 뜯는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아 여러 명의 인부들이 다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16개월 동안 연인원 5천 명의 인부가 동원된 끝에, 노천극

장은 1959년 10월에 완공될 수 있었다. 총 3,662평 규모에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탄생한 것이다.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가 소라관이라 불리게 된 무대는, 객석에까지 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8개의 아치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무대 앞에는 2개의 분수대를 만들어 물이 뿜어져 나오도록 했는데, 햇살 좋은 날이면 무지개를 만들어 행사를 장엄하고 화려하게 빛내주었다.

이렇게 완공된 노천극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노천극장에서 열린 최초의 행사는 1959년 10월에 개최된 개교 10주년 기념 제4회 대학제였다. 이를 시작으로 대학의 수많은 공식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평화의 전당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 때문에 소라관이라 불리게 된 무대는, 객석에까지 소리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8개의 아치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5월 18일을 전후해 거행되는 개교기념식 장소도 주로 노천극장이었다. 학교의 큰 변화를 이끈 행사도 이곳에서 많이 열렸다. 1964년에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미래메시지’가 공표된 곳도, 의과대학 및 경희의료원 설립을 가능하게 한 ‘동양 의과대학과의 합병식(1965년)’이 거행된 곳도 바로 이 곳, 노천극장이었다.

1970~90년대에는 학생운동 집회장소로 많이 애용되었다. 1972년 교내 유신반대 시위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총학생회 행사뿐만 아니라 전대협·한총련 등 전국적 규모의 연합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노천극장은 청춘의 열정과 패기가 발산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축제 때가 되면 노천극장은 젊음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찬다. 음원제 혹은 초청 가수들의 공연 때 모인 학생들은 어깨를 걸고 같은 노래, 같은 율동, 같은 구호를 외치며 하나가 된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타원형의 둔덕을 비스듬히 깎은 후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스탠드를 만드는 동시에, 그 끝부분에서는 무대 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대를 덮을 아치형 지붕 공사가 까다로웠다. 폭 27m, 높이 15m, 깊이 11m의 아치형 지붕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큰 사고도 있었다. 한 번은 업자의 부주의로 콘크리트가 계 굽기 도 전에 틀을 뜯는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아 여러 명의 인부들이 다치기도 했다.



기획

# 설립자 조영식 박사 ‘학장취임식’, 61년 만에 베일 벗다

1954년 조영식 박사 학장취임식 녹음본 발굴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도 크나큰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 한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정 대학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는 심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고, 세계적으로 내놔서 첫째가는 제일 대학과 경쟁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빈한하고 국가경제를 위시해서 모든 점에 약한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백배, 천배의 노력과 정성을 바치지 않아가지고는 아니 될 듯 생각합니다.”

지난 1954년 5월 20일에 있었던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학장 취임식 연설 내용이다. 당시의 ‘학장 취임식’은 지금의 ‘총장 취임식’에 해당한다. 당시 우리학교는 종합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장이라는 직함 대신 학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전쟁의 포화가 멎고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에 서울캠퍼스 일대는 허허벌판이었다. 우리학교에 있던 건물이라고는 1957년까지 임시로 썼던 문과대학 교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학장 취임식 역시 이 건물에서 진행됐다.

설립자가 학장으로 취임하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지금까지 이 행사에 대한 기록은 ‘사진자료’만 남아있었다. 연설 내용에 대한 자료나 행사순서가 기록된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경희기록관에서 취임식 녹음본 ‘오디오 릴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면서 당시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취임식이 담긴 릴 테이프는 우연히 발견됐다. 지난 2010년에 경희기록관이 출범하고 2013년 확장하면서, 경희기록관은 기존에 존재하던 ‘중앙박물관 산하 경희역사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인수하게 됐다. 이후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 귀중한 릴 테이프가 발견된 것이다.

경희기록관의 남기원 계장은 “그동안에는 박스가 새것이었었고, 테이프 곁에 아무런 제목도 적혀있지 않아 빈 테이프로 여겨 방치돼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역시 처음엔 빈 테이프라고 여기고 박스를 정리하는데, 박스 안에서 ‘1954년 학장취임식’



“위대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동양적으로 세계적으로까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모교의 건설을 위해서 훨씬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릴 테이프가 혹시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일 수 있겠다 싶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희기록관은 외부업체에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의뢰했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청취한 결과 이것이 1954년의 ‘학장취임식’ 자료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녹음 연설문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기는 녹취 작업이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굴과정을 통해 교내에서 가장 오래된 오디오 기록물이자, 설립자의 가장 오래된 연설기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오디오 테이프에는 당시 학장취임식의 행사전체 내용이 녹음돼있다. 때문에 사회자의 행사 안내에 이어, 취임자 약력 소개, 취임자 입장 및 경례, 조영식 설립자의 학장



취임사, 학장에 대한 경례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영식 박사는 당시 연설을 통해 학장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대학발전을 위한 협동과 단결을 요청했다. “대학의 발전과 대학을 근거로 해서 항상 우리의 좋은 기량을,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뜻하는 목표를 향해서 일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와 같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조 박사가 1954년,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부터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내에서) 위대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동양에서, 세계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며 훨씬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말을 통해 우리학교가 단순히 한국 혹은 아시아 내에서 경쟁하는 대학이 아닌, 세계

①우리학교의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학장 취임식이 ②문과대학 교사에서 1954년 5월 20일에 열렸다. ③이번에 발굴된 릴-테이프는 교내에서 가장 오래된 음성자료로 당시 학장 취임식의 행사 전체 내용이 녹음돼있다

사진 : 경희기록관 제공

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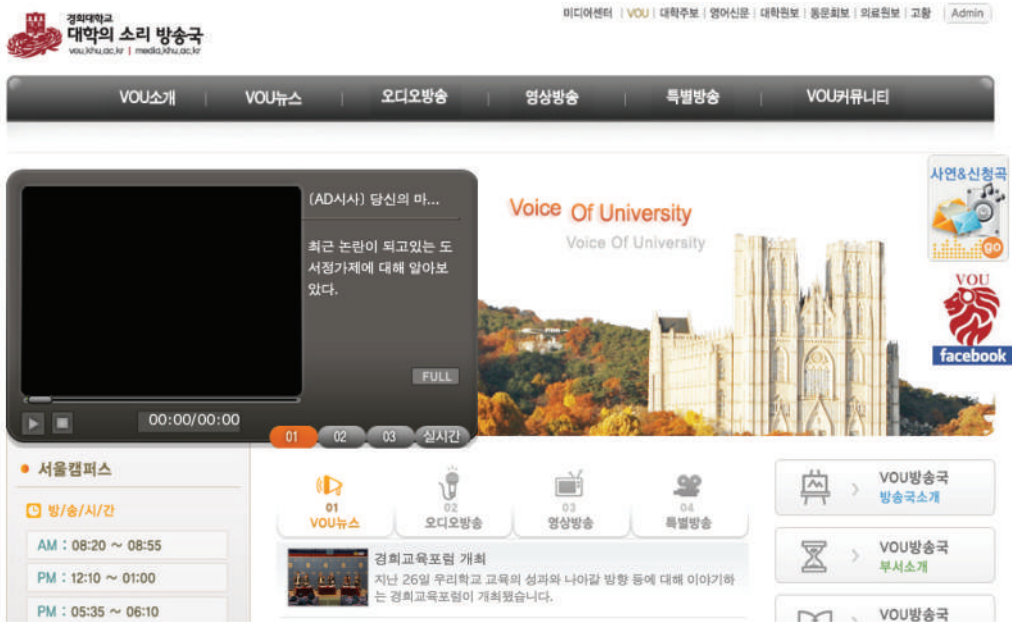
이에 대해 경희기록관 남 계장은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다”고 입장을 밝히며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한 60년대나 나오는 비전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그 이전, 그것도 전쟁 직후의 허허벌판 속에서 가건물 한 채 놓인 캠퍼스를 바라보며 이런 비전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실제 연설에서 밝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희기록관 측은 이번 오디오 릴-테이프를 계기로 학내 소장자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 계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아직도 소장자료 중 상당수가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더 발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저희 V.O.U는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란 이름으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기본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운동에 앞장서서 경희가족 여러분에게 뉴스의 보도,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을 하며 학내 정보 전달과 정서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저희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들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 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 제자리

## 서울캠 총학, 현행 제도에 단과대학 가이드라인 추가 제시

## 국제캠 총학, 인플레 이미지 ‘우려’ 신중한 개편 필요하다는 입장

성적평가제도 논의 경과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협의체)가 4차 회의까지 마친 지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는 현행 학사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학생 설문 조사에 따라 현행제도 유지와 단과대학별 성적 가이드라인 제시안을 내놓았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성적인플레이션 이미지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4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팜세홀에서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캠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 교무처 박광현(원자력공학) 처장,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과 한상 계장,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과 민혁(경제학 2014) 집행위원장, 백상현(화학공학) 교수와 윤지웅(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학본부에서 교강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강좌별 평균학점 B0 요청’으로 논란이 발생한 뒤, 서울캠 총학이 제안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공정하고 엄정한 성적평가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대외적 학교 위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응’ 한다는 운영목적

을 내걸었다. 이후 2월 5일에 열린 1차부터 3차 회의까지 우리학교 성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성적평가 기준, 성적분포도의 대학평가 반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강좌별 성적 부여의 기준’, ‘절대평가 강화 타당성’, ‘재수강 시 취득 가능 성적’ 등을 논의했다. 교무처 박광현 처장은 다 대학보다 심한 우리학교의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언급했다. 박 처장은 “2014년 공시 기준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A와 B 학점을 합친 비율이 타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느낀한 ‘재수강제도’를 꼽았다.

실제 우리학교의 재수강관련 제도는 학점 B- 이하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일 안이다. 성공관대는 C+ 이하 신청 가능에 취득가능 학점은 B+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는 재수강 신청을 3회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캠 총학 이서영 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어떤 기준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 앞서 졸업생들의 실제 재수강 이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황 파악 후에 취득학점 혹은 수강학점에 제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적평가제도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은 ‘현행 성적평가제도는 유지하되, 단과대학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안은 서울캠 총학이 서울캠 재학생 7,08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진행한 설

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설문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과 식품영양학과를 제외한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은 현 성적평가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직과목의 경우는 절대평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학계열 학생들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공동 실험을 비롯한 실험수업의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소수의 이론수업을 제외한 전 과목 절대평가제를, 의·약학계열 학생들은 유급제도 관련 논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국제캠 총학 이 부회장은 “국제캠 학과의 학점 분포도를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이 없다. 학점을 잘 준다는 우리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성적 평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다만 성적평가 기준에 관해서는 “현행 기준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타 대학보다 제약이 적어 교수의 성적평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이유에서다.

백상현 교수는 학점 인플레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졸업 성적에 학과 전체 평점, 단과대 전체 평점을 명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이런 식으로 성적을 낸다면, 학점 인플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제5차 회의는 오는 7월 13일로 예정돼있다.



## 가장 큰 이슈, ‘문화복지시설’

대학주보 1학기 온라인 기사 분석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우리신문은 이번 학기부터 종이 신문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한 학기동안 작성된 대학주보 온라인 뉴스 중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기사들을 살펴 본다.

2015학년도 1학기, 구성원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주제는 ‘문화복지시설(가칭)’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신문이 지난 1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6개월 간 작성한 기사 총 334개의 대학주보 온라인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다.

온라인 조회수 상위 20개의 기사 중 ‘문화복지시설’ 관련 기사는 총 4건이었다.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그 정체가 뭔가요?(조회수 3106회)’와 ‘정문 앞 노란색 건물, 캠퍼스에 재미 더해줄 것(조회수 1922회)’ 등 문화복지시설의 건물색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 개관 후 갑론을박’이라는 기사와 같이 문화복지시설에 상업시설이 상당수 입점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다. ‘회기동에서 오래된 식당 7곳은 어디?(조회수 5970회)’,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조회수 3294회)’ 등 우리신문이 학교 주변의 지역소식에 대해 다룬 내용이 각각 조회수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총여학생회(총여) 존폐논란과 관련된 기사다.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조회수 2839회)’는 댓글이 23개 붙었다. 6개의 대자보가 연이어 붙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신문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이후 총여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차례로 게재했다.

그밖에도 온라인 기사 ‘2015학년부터 졸업 후에도 재수강·학점포기 기록 남는다(조회수 3079회)’, 온라인 기사 ‘서울캠 주변 성범죄 고위험지역 5곳, 국제캠 상대적으로 저위험(조회수 1849회)’, 온라인 기사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즐기자!(조회수 1525회)’, 1585호에 실렸던 ‘서울-국제 간 자연계열 동일 과목 인정 안돼 대전공희망 학생, 모순된 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조회수 1317회) 등의 기사가 구성원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4차 회의가 국제캠에서 열렸다

〈온라인 기사 조회수 상위 10개 게시물〉		
순위	기사 제목	조회수
1	회기동에서 오래된 식당 7곳은 어디?	5970
2	“누구세요?” 한눈에 보는 신입생	5415
3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	3294
4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그 정체가 뭔가요?	3106
5	2015학년부터 졸업 후에도 재수강·학점포기 기록 남는다	3079
6	‘경기도의 딸’ 키썸과 함께, 즐거운 개강!	2866
7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	2839
8	서울캠 보행자도로 변경,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 목적	2366
9	O&P 학과평가 최우수,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2188
10	“정문 앞 노란색 건물 캠퍼스에 재미 더해줄 것”	1922

ABOUT UL

ARCHIVE

Campus

People

Feature

Culture

Opinion

Community

Traditional Markets Reviving and Growing

At 4 a.m., before the sunrise, all the merchants are awake and busy preparing for the start of their business at Noryangjin fisheries ...

Kyungheeian

How Tough Is Your Military?

KHULife

Housing • No Contents.

Place • No Contents.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으로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들을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들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개의 해외 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기획연재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5회에 걸쳐 살펴본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점을 해본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외국인 학생선발 시스템
- ⑤ 대학원 조직문화

# 부당처우 경험한 대학원생 63.6% 참고 넘어가 학생 '생사 여탈권'을 교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 원인

기획연재⑤ - 대학원 조직문화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기회로 삼자’ 연재기획에서 앞서 다룬 문제들은 ‘교육여건’이나 ‘연구환경’의 문제임과 동시에 대학원생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도 달아있다. 신진연구자 혹은 그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대학원생을 이해하기 보다, ‘하위존재’로서 접근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청년위원회는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학원생 45.5%가 ‘대학원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부당처우의 유형은 언어, 신체·성적 폭력, 사적 노동, 저작권 편취 등 다양했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작년 11월에 실시한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대학원 수료생 및 재학생 259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전체 응답자의 43.2%가 ‘부당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처우의 유형은 ‘자기결정권 침해’가 42.2%로 가장 높았고, ‘개인존엄권 침해’, ‘학습연구권 침해’ 등이 각각 26.1%, 20.1%로 뒤를 이었다. 또 부당처우를 당하고도 63.6%는 이를 알리지 않고 참고 넘어갔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

## 대학원의 여러 문제는 대학원생을 대하는 인식의 문제와 달아있다

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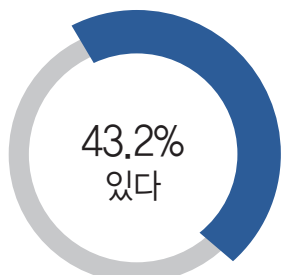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진홍 회장은 “부당한 처우를 겪은 원우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자신이 속한 연구실이나 프로젝트에서 교수님의 눈 밖에 나면 더 큰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부당대우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다. 학생이 계획 중인 논문 계획과 주제를 지도교수가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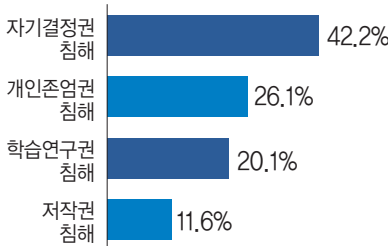


사진 : 홍영민 DB

### 부당처우 경험이 있는가



### 부당처우 유형



우리학교 연구환경 실태 조사 중  
조사기간 : 2014. 11. 24 ~ 12. 12

채거나 연구에 많은 부분을 학생이 담당했지만, 논문에 이름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도교수가 자신의 집까지 개인적인 일로 호출하기도 한다.

대학원에서 이런 후진적인 인권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박 회장의 지적대로 ‘대학원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원의 특성상 자신을 지도하는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 및 학위 심사 등 자신의 밑에 있는 대학원생의 절대적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다. 일반대학원 설문조사에서도 부당처우에 침묵한 이유에 대해 57.8%가 ‘학점, 졸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학원에서 흔히 있는 문제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살펴봐도 대학원생은 교수의 ‘연구 조력자’로서 인식된다.

도쿄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채연 양은 “교수님이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일을 학생에게 지시했을 때는 연구비 처리를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한다”며 “교수님의 경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시키는 교수임장에서도 받는 학생임장에서도 미안하거나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일본의 경우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아닌 ‘규정’을 통해 정당한 보수를 주고 받는다.

대학원과 일반대학원 학생회 측에서는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 ‘대학원 공동체문화 및 대학원생 인권보장 개혁안’ 발표했다.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인권 공개토론회 학기 당 1회 개최, ‘사례별 연구환경 및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대응 매뉴얼 개발’, ‘대학원에 상시 상담인력을 배치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센터인 대나무숲(가칭) 설립’ 등이 있다.

## 일본의 경우 대학원생은 ‘연구조력자’로 인식된다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학생-교수 간의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교권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학원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안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당대우가 단연한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안이 도출되고 100일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인권보장 개혁안을 주도한 박 회장은 “학기 중 다른 사업에 바빠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방학 중 대학원생 인권보장에 관한 교수의회·학생회가 함께하는 선언문 작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 연구개발비(R&D)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연구개발비(R&D) 유용, 횡령, 부당집행 등 부정사용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연구비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 제출
-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번호 : (02)2110-0678
-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특별 기고 - 100세 시대



**오윤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100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처럼 가능되지 않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대화속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수명 연장은 옛부터 인간 개인으로서 바랬던 장수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를 수치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를 위함이었던 듯 등장한 J. Jonasson의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 알란칼손은 나이가 중요치 않으며, 가장 중요한 가치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기도 하다. 의미있는 이런 주장은 노인의 고집으로 치부되기 쉬운데 100세 시대 하면 청년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먼저 노인을 떠올리고 동시에 몇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 예를 들면, 허약하고 댨사나고 무능력하고 노망이 있는 등의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일축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세 시대는 노화과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경제·정치를 포함한 제 측면에서 신사회 시스템 내지 표준기제의 창조를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품고 있는 도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100세 시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편, 기능적 연령이나 생애주기에 의한 노인구분이 있기는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이란 역연령(chronological age, 曆年齡)으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는 때론 환갑 또는 정년퇴직을 고려하여 60세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최근 대한노인회 중심으로 70세로 상향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노화, 노령(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www.imagetoday.co.kr)

령)사회, 100세 시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제 100세 시대는 기대수명(총생 이후 생존하는 평균횟수로서 청년, 아동 등의 사망률이 포함된 경우)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을 지정하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기고령사회 도래를 예측하게 하므로 사회의 기초가 되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개인과 가족의 삶은 물론 세대가 다른 사회구성원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우리사회의 압축적 고령화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돌이켜보면,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은 선 가정, 후 국가 개입 구도를 유지해 왔으므로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부부의 경우, 과거 사회에 비하여 부부생활기간이 장기화될 것이며 기대 이상으로 자동연장된 노년기 생활에서는 배우자, 가족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핵심자원인 사실에는 아직 두드러진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방증으로 OECD의 2030년 가족미래 보고서(2008) 역시 오히려 세대 간 유대는 강도와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효를

비롯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실천적 수준에서는 세대동거 내지 가족네트워크의 구축력이 약화되어 노부모 부양부담은 가족돌봄이라는 비공식 지원의 총량에서 이미 많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우리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독사예비군으로 불리는 독거노인 및 위기노인은 가족체계에서의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무연사회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구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대부분이 가족돌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의 주요 구성원은 여전히 가족인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돌봄의 win-win을 위하여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지지, 휴식지원, 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이 보편화된 서비스로 지원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령세대는 노후부양은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세대는 개인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치관 변화를 참고하여 가족돌봄기능의 강점을 강화한 가족외적인 지지체계로 100세 시대 가족돌봄의 보완 및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청장년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골격있는 노인, 신세대로서의 노인, 인생 이모작, 서로돌봄사업 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새로마지플랜 2015을 통해서 노후설계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노후설계상담사, 노인생애경력조언자, 100세누리포털 등의 내용으로 중장년층을 포함한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지킴이 다이얼, 그룹하우스, 프랑스의 청년노인세대동거, 독일의 다세대공동주거, 핀란드의 고령자집합주택 등이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0세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WHO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대표사례인 뉴욕시를 살펴보면, 2007년 뉴욕의대와 협력 추진 결과 2010년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첫 가입도시가 되었는데 4대 영역 15개 세부영역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장혜경 박사는 고용과 경제적 안정, 자원봉사,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 주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교통의 접근성, 고령친화적 공공 공간, 건강, 고위험군 노인, 영양, 수발과 장기요양, 완화케어와 죽음준비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 참여마당

이혜진  
국제학(2014)



## 강의수강인원 줄여 토론식 수업 진행해야

2학년 1학기 종강이 20여 일 남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들을 되돌아 보았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주입식 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입학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대학 수업의 참된 본질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 받는 교육보다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은 모두 최소 40명에서 최대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듣는 대형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말할 기회를 잃었다. 대학은 학원도, 취업 학교도 아닌 생각을 기르는 곳이다. 배분 이수영역 교양수업인 ‘정의란 무엇인가’는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렵다. 미리 지정된 학생이 책의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님이 이에 대한 첨삭과 함께 설명을 보충해 주신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개인 발표를 듣고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세한 의견을 듣기 어렵다. 교수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수업도 필요하다. 지식을 배우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이 ‘가치’에 대해 배우는 수업은 적극적인 토의 방식의 진행이 필요하다.

## 아쉬운 점은 ‘가치’를 배워가는 수업조차 반드시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운영하며 신입생들에게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 교육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한다. 철학적이고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수업들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의 주입식 교육을 받던 신입생들은 자유, 사랑, 행복, 정의, 평등, 공동체, 과학 혁명, 근대, 경제 혁명 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신입생 시절, 이 수업들을 통해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것을 벗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의 기회를 얻었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가치’에 대한 수업의 방식조차 반드시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들었던 1학기 교수님은 주로 교재에 대한 설명 위주의 수업을 하신 반면에 2학기 교수님은 개념에 대한 설명,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위주의 수업을 하셨다. 관련된 키워드와 책에 있는 고전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었다. 교재에 실린 글, 문제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2학기에 무작위로 편성된 조에서 나이도, 학과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학생들과 개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토의를 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었다. 대형 강의를 축소함으로써 토론식, 토의식 수업이 자리 잡고 대학 수업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1면에서 이어짐

그는 법정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방인인 자신에게 이방인의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방인을 위한 법. 방베니스트의 말대로 환대는 항상 ‘상호성’을 보장하는 법, ‘상호적 약정’이었다. 해당 나라의 법이나 관습, 언어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일시적 체류로 한정함으로써 환대를 부여받게 되는 칸트의 조건적 환대는 여기서 멀지 않다. 주인의 언어로 환대가 요청되고 ‘당신에게 장소를 선물할테니 이 곳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주권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조건적 환대가 행해지자마자 환대는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한다. 환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모두 환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도래하는 이름 없는 자를 환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름이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이전’에 환대



## 환대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모두 환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

가 행해져야 하지 않을까? 데리다는 다시 묻는다. 주인과 손님의 구별을 전제하는 상호성의 법이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데리다는 다시 오이디푸스를 불러온다. 왕이라는 의미를 지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떠돌이 부랑자,’ 범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린’ 범의 이방인인 오이디푸스가 범의 주인인 테세우스를 이방인이라 부른다. 테세우

스는 오이디푸스를 환대하면 아테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에 몰도잡혀 있다. 주인(host)은 이미 항상 볼모(hostage)이며 이방인은 주인을 동요시키는 열림인 동시에 그의 구원자이다. ‘나는 단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리다처럼 주인은 이미 손님의 손님일 뿐이다. 이방인은 무엇보다도 규정불가능한 형태로 도래하는 자이다. 주인과 구별되는 존재였던 이방인은 이제 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유령으로 되 돌아온다. ‘오이디푸스라 불리는 불쌍한 유령을 가련히 여겨 주시오.’ 환대의 공간에서는 이미 규정된 자 뿐만 아니라 아직 규정되지 않은 자, 규정불가능한 자들의 유령이 출몰한다. 해방자라도 되듯, 마치 구원자인 양 도래할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환대할 때 환대는 절대성을 획득한다. 전지구적 시장 체계 속에서 환대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환대하라는 명령이 절대적 긴급성을 갖는 곳도 바로 여기이다.

2015년 재학생 모교방문단 모집

모교방문단 활동을 통하여 은사님과 후배들도 만나고 우리 대학을 홍보할 뜻 깊은 활동에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경희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 활동내용 : 경희대학교 홍보 및 201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 신청기간 : 2015.6.15.(월) ~ 22(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입학처 홈페이지)

▶ 활동기간 : 2015. 7. 3(금) ~ 9.5(토) 자유롭게 선택

▶ 선발자발표 : 2015. 6. 25(목),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교육일정 : 서울C - 2015. 6. 29(월), 30(화) 15:00~16:00 예정  
국제C - 2015. 6. 30(화), 7.1(수) 15:00~16:00 예정  
※ 선발자에 한하여 사전교육 실시, 교육불참자는 모교방문단원에서 제외됨

▶ 특 전 : 활동비지급, 우수보고서 제출자 포상, 사회봉사시간 8시간 인정

▶ 문 의 : 입학처 (서울C 02.961.0028/ 국제C 031.201.3300)

경희대학교 입학처



스포츠 / 건강



농구부는 지난 3일 열린 단국대 전을 승리하며 전반기 9승 1패의 성적을 거뒀다

주력선수 부상에도 전반기 1위

2015-1 농구부 결산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농구부가 지난 3일 단국대 전을 61-58로 승리하며 ‘2015 남녀대학농구리그’ 전반기를 1위(9승 1패)로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12점 열세를 역전할 만큼 농구부의 기량은 출중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시즌 초반부터 농구부는 갑작스럽게 전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전력으로 꼽혔던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리그 첫 경기를 3일 남기고 무릎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건주(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지난 3월 발목부상을,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는 5월 19일 건국대전에서 손목 부상을 입었다. 결국 김철욱 선수와 성건주 선수의 부재로 센터진에 공백이 생겼고, 속공플레이를 주도했던 맹상훈 선수의 부상은 큰 위기였다.

그러나 농구부는 이런 위기를 스피드와 호수비로 극복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경기에서 성균관대는 속공득점을 2개 성공한 반면 우리학교는 13개를 성공했다. 특히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이 경기에서만 6개의 속공득점을 올렸다. 또한 골밑에서는 지역방어와 대인방어로 빠르게 전환하며 효과적인 수비전선을 구축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다섯 선수가 함께 공격에 가담해 패스회전율을 높이고 속

공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주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체력이 강해졌기에 가능한 작전이었다. 농구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만에서 진행된 동계훈련에서 새로 부임한 김익겸 체력코치를 중심으로 파워,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을 보강하고 저녁운동 시간에는 개인기 연습에 매진했다. 이번 시즌 총 200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20점을 득점한 한희원 선수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급하게 돌파하고 공격하는 습관을 고쳤다”며 “무빙샷 연습을 통해 득점성공률도 높였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던 주전, 비주전 선수간의 기량 차도 줄었다. 주로 저학년으로 이뤄진 비주전 선수들이 전술에 투입되었을 때 불협화음을 내지 않도록 전술훈련에 집중한 결과, 지난 4월 27일 단국대전에서 정지우(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6분간 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민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6월 3일 진행된 단국대전에서 16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1패를 기록한 연세대전에서 드러난, 강한 센터진을 상대할 때의 한계는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4일 열렸던 연세대와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2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한데 비해, 연세대는 2배인 50개의 리바운드를 따냈다. 201cm의 장신인 연세대 최준용(스포츠레저학 2013) 선수가 잡은 리바운드가 25개로 우리학교 전체 리바운드 수와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우리학교 성적

일시	상대	결과
3.23	연세대	71-57(승)
3.31	성균관대	66-56(승)
4.7	건국대	79-69(승)
4.13	상명대	69-58(승)
4.27	단국대	75-65(승)
5.4	연세대	66-70(패)
5.13	상명대	73-46(승)
5.19	건국대	79-71(승)
5.27	성균관대	75-56(승)
6.3	단국대	61-58(승)

동일했다. 우리학교는 최장진 선수가 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연세대 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학교의 경기당 평균 리바운드 수는 39.10개로 12개 팀 중 9위에 해당한다. 리바운드 수 1위인 고려대와는 무려 11.26개 차이다.

농구부는 이번 하계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감독은 “센터가 없어 언제나 각자 전술의 극대화가 남은 시즌을 판가름할 것이다”고 말했다. 속공과 수비만으로 근본적인 신장 차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중·고등학교 선수 시절 센터였던 이성순(스포츠지도학 2013), 이건희(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김철욱 선수를 대신해 센터로서의 기량을 키워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오는 8월 28일 한양대 전을 시작으로 후반기가 진행된다.

4일, 학내 메르스 확진자 소문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져

메르스 확진환자 소문 해프닝

이시은 기자 ditdms77@khu.ac.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내에서도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부터 불거진 ‘국제캠퍼스 메르스 확진자’에 관련된 풍문은 교육대학원 학생의 문자에서 비롯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교육대학원 행정실 최필호 행정실장은 “지난 4일 저녁, 오후 6시 30분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해당 수업 강사에게 ‘본인이 메르스 확진자라 발표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대학본부와 휴강 및 접촉대상 격리조치 등의 사안들을 받 빠르게 논의하던 중 학생 본인으로부터 ‘사실 확진자는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았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대학원 행정실 측은 지난 5일 오후 ‘메르스 확진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부 대학원생들에게 전달했다. 긴급히 논의되던 각종 휴강관련 사안들은 오늘 오후 3시 모두 종료됐다.

지난 5일 저녁에는 한국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확진환자가 머무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외대 독립언론 ‘외대알리’에서 해당 게시물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공포가 더 커졌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의료원 측은 “지난 2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찾아왔으나, 기본적인 검사 결

생활 속 예방 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을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치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과 메르스 증상이 아니어서 귀가조치 시킨 일만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희의료원은 열감지 기구를 2개 설치해 관련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이밖의 출입구는 폐쇄한 상태다.

이후 한국외대 총학생회와 외대알리도 각각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측은 사과문을 통해 ‘미숙하고 경솔했다. 메르스라는 끔찍한 사안 앞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조급함과 욕심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보다 앞섰다’며 경희의료원과 우리학교에 직접 찾아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스 우려’로 인해 국제캠퍼스 대학의소리 방송국은 지난 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 34회 방송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양 캠퍼스 건강센터는 메르스 관련 공문을 발송해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모두 소속 행정실에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메르스 홍보물’을 강의실마다 부착해달라고 전했다.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측은 “아직까지 메르스 환자로 실제 보고된 경우가 없었다”며 “잘못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적인 발표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건강센터 측은 소문보다 공식적인 발표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